

## 에스라 1 장

1. 1-4절을 대하 36:22-23과 비교해 보자.

**기본적인 내용은 글자까지 동일한데 조금 더 추가되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유다 예루살렘으로' '거기 있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라'는 말씀과 4절이 추가 되었다. 대부분의 번역본은 생략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의 첫 글자는 '그리고'이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에스라는 역대기의 계속인 셈이다.

2.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란 표현은 에스라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다(1:4, 3:3, 5:2, 6:3).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법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각 민족이 고유의 신을 섬기도록 허락한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대단히 많다. 그 중에서 하나를 구별하려다보니 지명까지 붙인 것이다.

3.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1):** 일반적인 시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다. 바사왕 고레스는 점령 민족의 자치를 허용했던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관리들을 그대로 앉히고, 유화정책을 폈으며 자신의 군대가 정복민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했다. 정복한 민족들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였고, 바벨론 포로민들이 원거주지로 돌아가도록 허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레스로 하여금 이런 정책을 가지게 하신 것인가? 고레스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에 대한 문제다. 이것이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이다. 이런 일에 대하여 약 2세기 전에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사 44-45장). 예레미야도 포로생활이 70년에 마칠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29:10).

어떻게 보면 신앙은 주관적인 체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사람을 넘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이다. 오늘 나를 통하여 무슨 역사를 하실까?

4.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내용이 무엇인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할 것(렘 25:11, 29:10):**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는 포로에서 놓여나는 부분만을 가리킨다.

5. 바사(페르시아)왕 고레스가 누구기에 이런 명령을 하는가?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이란 바벨론을 점령한 첫해(BC 538)라는 뜻이다. 실제로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된 것은 오래 전이다(BC 559).

6. 고레스는 신앙이 참 좋았나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로다.' 했으니...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지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있었을까?

**다니엘(단 6:28):** 바사 왕 고레스(혹은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했음에도 다니엘을 그대로 총리에 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 다니엘이 고레스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말을 알게 했을 것이며 이런 정책을 수행하도록 권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포고문의 입안자가 다니엘 아니었을까? 고레스의 정책, 다니엘의 헌신, 하나님의 섭리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고레스만 본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는 것이다. 반면에 맹신자들은 하나님만 본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데 무슨 탄 소리가냐고 남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느라고 고레스를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 바람에 정말야 다른 모든 백성들도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상 중근동에서 이런 정책을 편 왕은 고레스밖에 없다는 점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임을 보여준다.

7.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용하신 분이 이제 와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스라엘이 변했다기보다는 작정하신 형벌의 기간이 다 찼기 때문이다:** 초라한 성전이든, 화려한 성전이든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백성들을 인도하시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한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성전건축이었기에 건축을 명했을 뿐이다. 성전건축이 곧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8. 유대인 가까이에서 사는 것은 재산상으로 위험하다(4). 종종 그들에게 금과 은을 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다른 예가 있는가?

**출애굽 때(출 12:35-36):** 자기 재산인데 어떻게 줄거이 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일종의 속근예물을 드리는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웃에게 부조하는 것이나, 오래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영영 떠날 때 전별금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9. 왜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만 돌아오는가? 다른 지파 족장들은?

바벨론이 침공한 유다는 유대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으니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은

대부분이 이 두 지파 소속이기 때문이다. 다른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가 앗수르에 의해 흩어졌다.

10.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면 80, 90세 정도 되는 분들은 돌아오려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미 바벨론의 삶에 익숙한 자들이다. 돌아오려고 나서는 일이 쉬웠을까?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한 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에 익숙해버린 아이들 때문인 경우가 많다. 석사, 박사 거치면서 10년도 채 안 되는 세월에도 그렇게 되던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일이다(5):** 신앙을 찾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말하자면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1. 고레스가 '다 올라가라'고 했으니 모두가 돌아왔을까? 돌아오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께 감동된 자만 다 일어났다(5):**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5만 명 정도였다(회중 42,360명, 노비 7,337명). 70년이라면 생활기반이 다 잡힌 상태다. 말하자면 생활기반을 버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먼 길(약 2,400km)을 가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잡아야 한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 선지자들의 말(사 10:20-23, 렘 31:8)을 기억하는 신앙을 지닌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람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며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12. 여호와와의 전 기명들이 바벨론 신들의 창고에서 70년을 지냈다(7). 치욕 아닌가?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고난이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다른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런 치욕을 스스로 감수하셨다.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법궤도 같은 현상이다(삼상 4:5-11). 징계를 당하는 자식보다 징계하는 아버지가 더 아프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함부로 까불다가는 벨사살 꼴이 난다(단 5:2, 30).

13. 고레스로부터 여호와와의 전 기명을 받은 유다 목백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5:14, 16에도 이름이 거론될 뿐이다. 이 귀한 기물을 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나?

**이 백성을 인솔하고 귀환한 지도자 스룹바벨과 동일 인물이라고 본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이다. 왕의 명에 의해서 귀하게 다루어질 기명들이니 당연히 백성을 인솔하는 지도자에게 맡겨졌을 것이다.

14.  $30 + 1,000 + 29 + 30 + 410 + 1,000 = 5,400?$

**2,499:** 더하기를 잘못 한 걸까? 비교적 중요한 기명은 2,499개 인데 전체는 5,400개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에스라 2 장

1.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왔는가?

**예루살렘과 유다 도:** 본래 '유다'는 나라의 이름이다. 이제는 바사의 한 '도에 불과하다. '각기 본 성에'라는 말은 '유다 도 내에서' 조상들이 살던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다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이 중에 혹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말하자면 유다의 왕족의 후손이 누구겠느냐는 것이다. 바벨론에서 명목상이지만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것은 여호야긴인데(왕하 25:27-30)?

**스룹바벨:** 여호야긴(여고냐)의 손자다.

3. 백성들을 인솔한 지도자 중에 스룹바벨 외에 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느헤미야와 모르드개까 있지만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1세기 후에 등장함)와 모르드개(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60년 쯤 후의 일)가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혹시 안면이 있는 이름이 있어도(예수아, 바아나 등) 동명이인이다.

4. 3절에서 19절까지는 가계에 따른 분류지만 20절에서 35절까지는 지역(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따른 분류다. 왜 이전처럼 지파별로 하지도 않고 더구나 지역별로 분류를 했을까?

**지파 개념이 무너지는 셈이며 더구나 자신의 계보를 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 지파라고 해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이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앗수르에 멸망하면서 이방인과 혼합되어 버렸다. 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3-19) 조상들의 거주지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20-35) 아예 가계도 고향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59-62). 가계나 조상의 거주지를 기억하는 것만도 여호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돌아갈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을 남겨두는 것은 훗날 이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참고로, 20절의 '깃발'은 느 7:25의 '기브온'이 올바른 표기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지명이다. 자신이 어떻게 유대인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면 엄청난 복음이 들렸다. 함께 귀환하는 하는데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

5. 포로로 지내는 와중에 지파별 개념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가장 분명하게 명맥을 잇는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레위(36-42):** 아마도 그들이 맡은 특별한 사역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자 레위인들이 대거 남쪽 유다로 넘어온(대하 11:16) 덕분에 이들은 여전히 지파로서 생존하고 있는 셈이다. 제사장, 노래하는 자, 문지기 등은 전부 레위 지파가 맡은 역할이다.

6. 돌아온 제사장의 수는  $973 + 1,052 + 1,247 + 1,017 = 4,289$ 명이다(36-39). 반면에 이들을 도와야 할 레위인들은 몇 명인가(40-42)?

**341명(74 + 128 + 139):** 가분수다. 머리는 엄청 큰데 몸통은 10분의 1도 안 된다. 몸통이 더 커야 정상인데?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 아마도 그들이 성전에서 하던 일을 가볍게 여긴 탓이 아닐까? 별 볼일 없는(?) 일을 하려고 생활기반을 버리고 그 먼 길을 가야 하나? 아마 이런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목사는 훌륭하고 집사는 보잘 것 없는 머슴일 뿐이라는 생각처럼 교회를 허무는 생각이 또 있을까?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벧전 2:9)..

7. 레위지파 다음에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43-54). 짐작으로 어떤 사람들일까?

**레위지파의 일을 돕던 이방인 출신들(스 8:20):** 가령,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 패며 물 끄는 자가 된 것처럼(수 9:23-27) 포로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많다(민 31:27-30, 46). 이름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름이나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이 많기 때문이다(느디님, 르신, 아스나, 시스라). '느디님'은 '주어진 자들'이란 뜻으로 레위인들을 돕도록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8. 솔로몬의 신복이 일반적인 신하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이렇게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위치도 앞쪽에 위치해야 옳다. 고위관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전쟁포로처럼 이방인으로서 귀환한 유대인:** '신복'이라고 번역된 말(에베드)은 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느디님 사람과 같이 취급되는 것(58)도 이 사람들과 비슷한 신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종이고, 이들은 왕궁의 종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왜 귀환하는 걸까? 차라리 바사에 그냥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데? 이들도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자들의 명단만큼이나 명예로운 자들이다.

9. 텔멜라와 텔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59)은 페르시아 지역의 이름이다. 여기에서 온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귀환자의 대열에 끼였을까?

**자신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 보면 족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포로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계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양이다. 부모와 친척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고아가 아니라면 계보를 소홀히 여긴 죄가 크다.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전쟁 통에도 자신의 학력,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휴

대하던데 하물며 스스로 유대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0. 족보를 잃어버린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

**제사장의 권리를 박탈당함(62-63):** 우림과 돌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던 도구였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들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 더 이상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분배되던 양식을 주지 말라는 것이니 제사장의 역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11.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인데 노비가 7,337명이면 많은가?

**다른 짐승들의 수를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다:** 말 730, 노새 425, 약대 435, 나귀 6,720 이니 요즈음 식으로 하면 가정당 한 대씩 트럭이나 경운기가 있고 머슴이 있는 셈이다. 65절의 '노래하는 남녀'는 아마도 부유한 자들이 고용한 음악가일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귀한 셈이다.

12. 족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있는 족장들의 어떤 점이 좋아 보이는가?

**예물을 즐기(68), 역량대로(69) 드림:** 아마 자신의 집보다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드렸다. 능력 이상으로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인의 열심은 그런 측면이 강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이상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는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재물을 팍아주시는 분이시다.

13. 다릭은 페르시아 금화로 8.4g이다. 현재 화폐로 환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대략 계산이라도 해보자.

$61,000\text{다릭} \times 8.4g = 512,400g(15\text{달란트}, 136,637\text{돈})$ 이다. 요즈음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1돈에 20만원으로 환산하면 거의 300억에 가깝다.

14. 본성이 어디길래 이들이 모두 본성에 거하였는가(70)?

**자기들이 본래 거하던 성(their own towns):** 그러니까 레위인(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과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노디님 사람들)이 거한 본성은 예루살렘이다. 그 가운데 끼인 백성 몇은 성전과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사람이다. 나머지 사람들도 본래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 에스라 3 장

1. 왜 7월에 모였지? 도착한 것은 몇 월이었을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4)** 연초에 귀국할 준비를 해서(1, 2달) 돌아오는데 2, 3달 걸렸다고 본다면, 거주지에 도착한지 겨우 2, 3달 밖에 되지 않은 때에 일심으로 모인 셈이다. 어쩌면 가장 가슴이 뜨거울 때 아니었을까?
2.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는데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무엇을 했는가?  
 '두려워하여'를 '두려워하면서도'로 번역해야 한다. 방해할 것이 예상되는 무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용감하게 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시작하였더라는 것이다.
3.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 아닌가? 왜 초막절부터 지켰을까?  
 유월절은 1월(태양력으로 3, 4월)에 있다. 아마 바사에서 귀환하기 전에 지켰을 가능성이 크다. 초막절은 6개월 후인 7월(태양력으로 9, 10월)에 있다. 그러니까 귀환해서 제일 먼저 맞는 절기였을 것이다.
4. 초막절에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제물을 얼마나 드린다는 것인지' 민 29장을 찾아서 정돈해 보자.  
**상번제로 어린양 16 마리(2×8), 매일 번제로 수송아지 71 마리(13+12+11+10+9+8+7+1), 수양 15 마리(2×7+1), 어린양 105 마리(14×7+7), 수염소 8 마리(1×8)를 드려야 한다:** 16+199=215! 제물의 수효를 보면 가장 크고 즐거운 축제였다. 제물 중에서 수송아지의 숫자가 13마리에서 7마리로 변해가는 것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초막절을 시작으로 성전제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5) 물론 초막절 이전 7월 초하루부터 번제를 드렸지만!
5. 5절에 등장하는 제물은 굉장히 많은 것이다. 이것을 특성상 굳이 두 종류로 나눈다면?  
**절기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물과 자원해서 부정기적으로 드리는 제물:**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란 자원해서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서원제, 화목제, 속죄제, 속근제...)를 가리킨다.
6. 어떤 단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칠월 초하루부터 번제를 드렸다(6). 칠월에 모였다고 했는데(1) 첫날부터 번제를 드렸다고?  
 본 장의 핵심은 번제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성전 지대를 놓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로 연결해야 한다. 그 사이에 준비과정(2-5)이 삽입되어 있는 셈이다. 순서대로 다시 정돈한다면, 칠월 이전에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지도 아래 단부터 만들었을 것이며(학 1:15)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번제를 드렸고 이후 계속해서 번제도 드리고 초막절도 지키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7. 7월 1일은 나팔절(신년절), 10일은 대속죄일, 15-22일은 초막절(장막절, 수장절)이다(레위기 23:24, 27, 34). 칠월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면 왜 가장 중요한 속죄일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 레위기 16:1-22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속죄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 속죄일은 일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인데 아직은 성전 지대조차 놓이지 않았으니 당연히 지성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8.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 아닌가?  
 제사가 성전보다 먼저다(6). 건물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나? 당시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제사가 더 우선이다. 교회당보다는 예배가 우선이다.
9. 품삯을 주는 방식이 왜 다르지(7)?  
 돈을 준 석수와 목수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고용계약한 모양이고, 양식을 제공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은 무역의 형태를 취한 것 같다.
10.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에 백향목을 수운하라고 했을까?  
 조서에는 성전건축을 명한 것과 도우라는 것뿐이다(1:3-4). 목재를 배로 운반하는 것은 지형상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육로로는 수많은 골짜기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7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을 뿐이다.
11.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7월이고, 성전 공사는 이듬 해 2월(태양력으로 4, 5월)에 시작했다. 왜 이렇게 꾸물거리지?  
 각종 자재(목재, 석재)를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 우기를 피하기 위한 계절적 요인도 있어 보인다. 솔로몬도 이때에 공사를 시작했다(왕상 6:1). 참고로 이른 비는 10, 11월에 오고, 늦은 비는 3, 4월에 온다(태양력).
12.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다'고 말할까(8)?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뜻이다:**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13. 성전을 건축하는 일의 감독은 어떤 사람들일까(8-9)?  
**레위 사람들:** 9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전부 레위인들이다. 중간에 '유다 자손'이라는 말이 끼여 있

는데 대부분의 역본은 이 말이 '호다위야'의 자손(2:40)이라는 말의 오기로 본다. 그래서 9절의 예수아(조감독)는 8절의 예수아(총감독)와 다른 사람, 즉 호다위야의 아들이다.

14. 원래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은 25세 이상이다(민 8:24). 여기서 왜 20세 이상으로 했을까?

**레위인들이 부족했기 때문(2:36-42):** 그 이전에도 이런 경향이 이미 있었지만(대상 23:27, 대하 31:17),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다.

15. 성전기공예배를 드리는 썸인데(10-11) 찬양이 주를 이룬다. 어떤 소리가 서로 어울리고 있는가?

**나팔, 제금, 찬송과 통곡:** 제금(提琴)은 현악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나팔과 현악기는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다. 고적대(鼓笛隊)라는 말에서 보듯이 나팔과 어울리는 악기는 북이다. 여기서 제금이란 심벌즈와 같은, 한문으로 표기할 수 없는 다른 악기다(자바라의 일종).

16. 모세의 규례(2, 4)는 무엇이고, 다윗의 규례(10)는 무엇인가?

모세의 규례는 제사와 절기에 관한 율법을(출, 레, 민) 가리키고 다윗의 규례는 찬양에 관한 것이다.

17. 성전의 지대가 놓이는 것, 즉 성전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하는 찬양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 분이 주시는 작은 선물보다는 그 분 자체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성숙된 자세인가! 우리의 많은 찬송이 하나님 그 분보다는 그 분과 관계된 주변의 일이나 그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18. 성전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왜 어떤 이는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이는 기뻐하는가?

**경험이 다르기 때문:** 첫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새로 짓는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 것과 그렇게 무너져 내려야 했던 아픈 역사가 떠올랐을 것이고, 이전의 이런 고통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그저 신이 났을 터이고.

### 에스라 4 장

1. 유다와 베냐민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바사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과 동일한 말이다. 다른 지파도 섞여 있었겠지만 이들이 주류였을 뿐 아니라 원래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2.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앗수르 왕이 심어놓은 이방인(2)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이에 생겨난 혼혈족(왕하 17:23-24), 즉 사마리아인들이다. 혈통만 혼잡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잡되어 버렸다(왕하 17:33).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3. 본래 대적인가, 함께 못하겠다고 해서 대적이 된 건가?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대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들의 요청을 유대인들이 거절해버리자 대적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4.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요소를 제거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함께 할 수는 없었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라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혼합되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경멸했을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조차 납득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행 11:1-3)?
5. 성전 건축을 명한 왕은 고레스다. 중단 된 성전이 어느 왕 때에 완공될까?  
 다리오(BC 522-485): BC 516년에 완공된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20년만의 일이다.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로 오래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 '의사'란 '조언이나, 상담하다'는 뜻을 가진 말로 바사의 고위관리를 가리킨다. 뇌물을 받은 이런 관리들의 농간으로 중단되지 않았을까? 참고로 왕들의 재위기간은 다음과 같다. 고레스(BC 539-529), 캄비세스(BC 529-523), 수메르디스(3개월), 다리오(BC 522-485), 아하수에로(BC 485-464), 아닥사스다(BC 464-424).
6. 아하수에로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BC 464-424)에게 고소하는 것은 성전 공사를 막는 것이 아니다. 이미 완공된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6-23절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사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12). 그런데 왜 여기에 삽입했을까?  
 대적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성전공사를 방해했는지 예를 든 셈이다. 실제로는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한 방해이다.
7. 아람어는 어느 나라의 말일까? 이 사람들은 바사 사람들인데?  
**앗수르의 언어:** 비록 바벨론을 거쳐 바사의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의 공용어는 아람어였다.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도 아람어였으니(7, 7절부터 6:18절까지는 아람어다)! 이런 현상은 로마시대에 또 나타난다.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공용어는 헬라어(그리스어)였다.
8.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소하는데 바벨론 사람이거나 수산 사람, 엘람(페르시아 지역) 사람이 왜 끼여 있는가?  
**앗수르 시대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이다(10):** 앗수르 시대에 바벨론이나 수산(엘람의 가장 큰 도시)도 번방의 미약한 상태여서 일부가 강제로 이주당했다. 존귀한 오스납발은 앗수르바니팔이란 앗수르의 왕을 가리킨다.
9. '궁의 소금을 먹는다'고? 우리식으로 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다:** 고대에 소금이 귀한 것이어서 봉급으로 나눠주기도 했단다(영어의 'salary'의 어원이 소금이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한다는 말인데...
10.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렇게 패역한 성읍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까?  
**있기는 있다(19):** 앗수르를 배척한 히스기야(왕하 18:7), 바벨론에 반역한 여호야김(왕하 24:1), 여호야긴(왕하 24:10), 시드기야(왕하 24:20, 렘 52:3), 바벨론 총독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렘 41:1-2). 외세의 침입에 이 정도의 대응은 당연하겠지만 대적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의도는 악할지라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11.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보다. 5%의 잘못을 근거로 100%를 덮어버리려는 정치꾼들도 참 문제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의 과거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해도 어느 부분이 억지인가?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16):** 강 서편 영지란 이스라엘이 최대의 영토를 지녔던 때의 땅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된다. 가나안, 레바논, 시리아 지역 전체를 예루살렘에서 관할하게 된다? 겨우 성벽만 세운 형편에? 아주 오래 전,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잠시 관할했던 그 땅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다시 회복한다고? 좀 심하다!
12. 옛적에 예루살렘을 주재하던 큰 군왕(원문은 복수형임)이란 누굴까?  
**다윗과 솔로몬이 적격이다:** 그 외에도 여로보암 2세, 오므리(이성 북왕국), 웃시야, 히스기야(남 왕국)도 이름을 떨쳤다.

13. 바사 왕 다리오 제 이년(BC 520)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리오의 승인 조서가 내려 성전 건축 작업을 재개하게 된다(6:7).



## 에스라 5 장

1. 중단된 성전을 완공하도록 격려한 선지자는 누구이며 무엇이라고 예언하였는가?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다(학 1:4, 스 1:2-6). 본래 '예언'의 성경적인 의미가 그렇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불문가지고! 그 말을 듣고 실행한 사람은 스룹바벨과 예수이다. 어떤 연유에서건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으면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다. 구속사 자체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답답해하실까? 인간의 표현을 빌리면 낮은 죄다!

2. 성전공사를 중단케 한 대적들은 거짓말과 뇌물을 동원했었다(4장). 이제 십 수 년이 지나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할 때 찾아온 이들은 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역지로 공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고 함:** 이전의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들이다.

3. 책임자의 이름을 물었을 때(4, 10)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었을까?

**세스바살(14, 16):** 스룹바벨이 책임자였지만 바사의 관리에게는 세스바살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동명이인이라는 증거다. 유대식 이름은 스룹바벨이고 바사의 이름은 세스바살이다.

4.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돌아보셨을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공작을 할 때에는 돌아보시지 않았던 걸까?

**관리들이 성전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셨다:** 아마 일전불사의 각오로 텀벼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시 33:18) 곧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단, 아무 것(불평, 불만, 좌절, 자살 같은 부정적인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기는 있다(출 14:14).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공작을 할 때에는 그런 용기나 열심이 부족했다. 아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핑계로 자신들의 일에 더 몰두했다(학 1:2-9). 오래 동안 영적 나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답답해 하신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하게 하신다.

5. 성전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들이 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을까(8)?

**유대인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상투적인 표현:**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정책을 베푸는 한 피정복자의 신이라도 본인들이 묘사하는 방식대로 묘사하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다.

6. 성전이 허물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가?

**하나님(12):** 조상들이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탓도 아니요, 느부갓네살 탓도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시 이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7. 갈대아와 바벨론은 어떤 관계인가?

**민족과 나라:** 결국은 같은 의미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다. 아람족이 세운 나라는 앗수르다. 거란족이 세운 나라는 청인 것처럼!

8. 고레스는 바벨론 왕인가(13), 바사 왕인가(1:1)?

바사 왕이지만 스스로 바벨론의 계승자로 자처했기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바벨론 왕의 국고에 있는 것도 그런 연유다(17, 6:1). 발해를 세운 대조영을 보고 고구려왕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을 법한 것과 비슷한 이치일 것이다. 굳이 고레스를 느부갓네살과 같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성전을 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뒤를 이은 고레스를 들어서 성전을 재건하러 하신다는 뜻을 은근히 내포하는 것 같다.

9. 유대인들이 고레스의 조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경우에 유용했을 텐데 조서 사본도 없었던 모양이다. 조서대신 쓸 만한 증거가 있었다면?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금, 은 기명을 가져온 것:** 고레스가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가져 올 수 없는 것이니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허용한 좋은 증거일 수도 있다.

## 에스라 6 장

1. 바사왕 다리오가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보라고 명한 곳이 왜 바벨론의 서적 공간이었을까? 결국 찾아낸 곳은 어디인가?

**왕의 조서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 그러나 다른 장소인 메대에서 찾았다:** 바사는 넓은 다른 지역도 다스렸지만 특히 바벨론과 메대를 점령하고 다스렸다. 바사의 전통적인 수도는 수산이지만(느 1:1, 에 1:2), 바벨론에는 거울궁, 악메다(메대지역)에는 여름궁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레스는 여름에 조서를 내렸던 모양이다.

2. 고레스가 명한 성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솔로몬 성전보다 높이는 세 배, 넓이는 두 배다(왕상 6:2):** 아마 제국의 강대함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이전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지으라고 명하지 않았을까? 일종의 허세다. 아무리 경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온통 금으로 덮은 솔로몬 성전의 흉내를 내기는 불가능하다.

3. 성전의 주재료는 무엇인가?

**플과 나무가 3대 1의 비율이다:** 정확한 의미는 분명치 않다. 플로 3열(층, 면) 나무로 1열(층, 면)이라고 하는 셈인데, 높이를 말하는 건지, 두께를 말하는지, 심지어 벽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4. 변방의 성전의 지으라고 허락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경비까지 다 대준다고?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왕실을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왕실에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 경비를 떼어주라고 하는 모양이다(8-9).

5. 발견된 조서의 내용이 1장에서 고레스가 내린 조서와 내용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1장의 고레스가 선포한 조서라면 본문의 내용은 아마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공문인 모양이다. 성전 기명을 둘러보내라는 부분만 동일하다.

6. 고레스가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전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아주 정확하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왕실을 위한 것이며 제사를 드릴 때 정확하게 드려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면 제물의 양과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지시를 내렸을 것이 틀림없다.

7. 성전건축을 방해하면 무슨 죄가 되는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 대역죄를 짓는 셈이다(10):** 다리오 당시에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므로 이런 명령이 더욱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다리오가 가짜 왕(가우마타)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각지에 반란이 일어나던 때였다.

8. 결과적으로 이런 명령이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공헌한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 민족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신전의 모습이 달랐을 텐데 모든 신전을 지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신으로서의 명성이 좀 있어야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믿는 티를 내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9.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죽어야 하는가(11)?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맥을 무시하고 이런 말만 보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다 붙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10. 들보만 빼어내면 거름더미가 되는가?

거름으로 쓸 만한 것들을 거기다 쌓아야 된다. 한국식으로 하면 거기다 동물을 퍼부으라는 말이다.

11. 다리오가 스스로 이런 글귀를 쓸 수 없다.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쓸 수 없는 표현을 다리오의 조서(11-12)에서 한 가지 찾아보자.

**‘그곳에 이름을 두신(신 12:21):** 성전이 성전다운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이 도와주었음이 틀림없다.

12. 성전 건축 문제로 다리오 왕이 새로 내린 조서는 역지로 분류하자면 세 가지다(6-7, 8-10, 11-12). 마지막 조서의 내용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부칙:** 왕의 명령을 반드시 신속하게 준행하라고 추가한 것이다.

13.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에 따른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14):** 현실적으로는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왕의 허락에 따른 것이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의사가 없는데도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당연히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성전 재건은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되다.

14. 아닥사스다의 조서(14)는 또 뭐야? 전을 필역한 것이 다리오 왕 때의 일이니 아닥사스다 왕은 아무래도 후대의 왕 같은데?

성전 완공은 BC 516년이고,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에 왕위에 오른다(에스라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BC 458년에 귀환 조서를 내려 2차 귀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기록될 당시 왕의 호의를 감안한 셈이다.

15. 성전이 파괴된지 70년 만에(바벨론의 3차 침공, 즉 BC 586부터, 왕하 25:8-15) 재건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짐승(17)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은 백성의 축제가기 때문이다:** 많아 보여도 과거 영화로웠던 시절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다(참고, 왕상 8:63, 대하 7:5). 그 때에는 화목제의 소가 22,000( 100), 양이 120,000( 600)이었다. 이 제물은 모든 백성들이 제사 후에 서로 나누어 먹는 축제음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16. 성전이 완공된 '아달월'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12월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한 달 정도 다음에 지킨 셈이다. 누가 유월절 양을 잡았는가?

**레위인들:** 원래 유월절 양은 가정 단위로 잡았으니 가장이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20절의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 그룹인데 그 중에 자기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이기 때문이다. 부정한 백성들 대신에 레위인이 양을 잡다보니 이렇게 바뀐 모양이다(대하 30:17, 35:10-12).

17. 20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표현하는데 21절은 두 그룹이다. 후자, 즉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

**이방 사람으로서 개종한 자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중간에 '자기 땅 이방 사람'이라는 표현을 주목하면 개종한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겠다. 사로잡혀가지 않은 유대인들도 이 두 그룹의 어느 한 쪽에 포함된 것이 틀림없다. 그 동안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그룹일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18. 웬 앓수르 왕인가(22)?

**다리오 왕을 가리킨다:** 앓수르 왕은 성전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다(사 10:12-15).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왕도 앓수르 왕과 마찬가지로 느낌이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일 뿐 어느 나라의 왕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바사 왕들은 앓수르, 바벨론의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앓수르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 에스라 7 장

1. '이 일'이란 성전 완공(BC 516)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에스라가 귀환했을까? 참고로 아닥사스다 왕은 BC 464년에 즉위했다.

에스라가 귀환한 아닥사스다 왕 칠년은 BC 458년이다. 약 60년 후의 일이다. 그 사이에 그리 큰 일은 없었던 모양이다. 아무리 그렇지만 60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마디로 건너뛰는가?

2. 에스라는 자신의 족보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 아닐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책임자임을 스스로 천거하는 셈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포로 시절에 제사장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직계 조상은 건너뛰고 있다. 이스라엘의 족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3. 뽕뽕한 집안이네! 조상 중에 누가 눈에 띄는가?

**비느하스, 혹은 대제사장 아론:** 아론을 대제사장이라고 강조한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당연히 아론이 눈에 띄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비느하스를 천거하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비느하스가 최고다(민 25:11-13). 아론이 시조라면 비느하스는 중시조로 대접 받을만한 위치에 있다. 그대가 신앙의 명가를 이룬 시조가 되든지 아니면 시조는 아닐지라도 중시조는 패라!

4. 신학대학원에서도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이론은 제쳐두고 성경만 가르치는 대학원이나 성경만 통독하는 모임의 이름에는 에스라가 많이 쓰인다. 왜 그럴까?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기 때문:**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을 다시 가르쳤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여 잘 가르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고전 14:5, 딤후 5:17). 그 뿐 아니라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역대기) 말씀으로 새롭게 여호와 신앙을 일으켜 세운 선지자다. 역대기와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 2의 모세'라고 칭송을 받기도 한다. '학사'란 표현은 서기관이나 학자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5. 에스라는 위대한 신앙인이다.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불신자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6, 12절의 '완전한', 14절의 '일곱 모사')**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것은 왕이 그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세속적인 인정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이나 게으름, 불의함에 대한 핑계로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신앙 때문에 무능한 사람으로 찍히는 것과 신앙을 핑계로 무능해지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6.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 즉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표현(7)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1차 귀환자들과 표현이 똑같다(2:2의 '이스라엘' 2:36의 '제사장' 2:40의 '레위 사람들' 2:41의 '노래하는 자들' 2:42의 '문지기들' 2:43의 '느디님 사람들')** 1차 귀환 후 약 80년 후에 귀환하는 모습이 흡사하다는 것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도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7. 돌아오는 데에 4개월이 걸렸네(9, 10)! 이 정도 걸렸으면 정상일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9)을 참고로 해서 생각해 보자?

좀 오래 걸린 셈이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뜻이다(8:15, 31, 21-22).

8. 에스라가 귀환한 것은 포로생활이 시작되던 150년이나 되었을 때의 일이다.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그 곳에 정착하여 동화되고도 남을 시간이다. 함께 돌아온 사람들도 훌륭하지만 에스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

**말씀에 대한 열심(10):**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원문상 초두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붙어있다, 영어의 For). 여호수아가 그랬고(수 8: 34-35), 하나님도 그랬다(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을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다.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9. 바사의 왕이 어떻게 알고 에스라가 하고 싶은 일(동족과 함께 귀환, 제사 드리는 일, 가르치는 일)만 하라고 조서를 다 내렸을까?

**에스라가 청원한 대로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다:** 에스라가 가만히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에게 간절한 소망과 그것을 이루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28절의 '내가 힘을 얻어'라는 표현도 이런 의미이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빌 2:13).

10. 에스라는 어떤 말로 왕을 설득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23). 공갈을 친 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왕에게 가르친 셈이다.

11. 에스라가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가르치면 되지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한 이유가 있을까?

**무언가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 틀림없다:** 14절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

여' 파송되었다는 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써서 가르치므로 개혁해야 할 만큼 종교적인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12. 성경에서 보통 '강 서편'이라면 요단 강 건너편을 가리키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는 강은 요단 강이 아니다. '강 서편'이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가?

**유프라테스 강 너머 지역을 가리킨다:** 이 강을 건너면 본래 바사의 본토에서 벗어나는, 지방 행정 구역이다. 에스라의 일행이 통과해야 하는 변방지역이다. 단, 25절의 '강 서편'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에스라에게 위임된 권한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3. 조서의 내용이 참 세밀하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해당자별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 1)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함께 가서(13-15),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16-20).
- 2) 고지기들은 요청하는 대로 돕고(21-22),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라(24).
- 3) 에스라에게 재판권을 주노라(25-26).

14.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의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징배하거나 가산을 적몰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은 에스라가 무슨 직책을 맡았다는 말인가?

**총독:** 단순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이런 힘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에스라가 이런 방식으로 백성을 지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왕이 자신의 방식대로 명한 부분일 것이다.

15. 누가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왕과 에스라와 모사와 방백들을 통하여(28)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건물 치장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성전이 아름다운 것이다. 성전을 재건하고 6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은 인종적인 혼합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있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은 한 사람을 택하여 이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셨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다.

## 에스라 8 장

1.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4-14)를 1차 귀환자(2:63-65)와 비교하면 규모가 어떠한가?  
**아주 적다:** 1차 귀환자의 숫자는  $42,360 + 7,337 + 200 = 49,897$  명인데 2차 귀환자는  $1,496(150 + 200 + 300 + 50 + 70 + 80 + 218 + 160 + 28 + 160 + 28 + 110 + 60 + 70) + 38 + 220 = 1,754$  명으로 1/30이다. 포로로 갔던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우리는 항상 소수다. 다수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기적 같은 일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2. 에스라가 이끌고 온 족장들(1)의 명단은 어디에 있는가?  
 '00 자손 중에서는'이란 표현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족장이다. 3절의 '스가랴', 4절의 '엘여호에내' 등이다. 그렇게 보면 5절의 스가냐 자손의 족장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10절의 요시바도).
3. 스가냐 자손이 두 번 나올 뿐만 아니라(3, 5) 5절에만 야하시엘의 아들의 이름이 없다? 뭔가 이상하다? 다른 번역본을 참고로 하자.  
 많은 역본들은 5절을 '삿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한다. 70인 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문에 '삿두가 빠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2장에 나오는 가족별 이름 중에서 삿두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10절에도 같은 현상이 보인다. 그래서 10절도 '(바니 가족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 슬로밋'으로 본다.
4. 아하와 강가에서 삼일동안 장막에 머무른 이유는 뭘까?  
**출발 준비:**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위인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레위인들은 왜 자원하지 않았을까? 알 수는 없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수종들며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던 탓 아닐까? 마치 교회 출석도 잇은 채 그냥 사느라고 바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던 레위인들을 각성시킨 셈 아닐까?
5. 자원하지 않는 레위인들을 억지로 데려 가야 하나(16-17)?  
**최소한 권면은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신다(18).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탓이다.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
6. 에스라가 잇도에게 사람을 보낸 결과로 데려온 핵심인물은 누구인가?  
**세레바와 하사바와 여사야:**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었는데 딸린 식구들마저 함께 왔다. 18절의 '한 명철한 사람'은 세레바를 가리킨다. 하사바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24절에 보면 제사장의 두목 중의 한 사람이다.
7. 레위인들이 귀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판국에 레위인들을 돕던 느디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동행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17절에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면서 '할 말'을 일러주었다. 아마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이다. 1차 귀환 때의 숫자와 비교하면(2:58) 정말 많은 숫자다. 짐작권대, 포로로 가면서도 신분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아서(왕족이나 제사장, 레위인) 신분의 변화에 대한 약속(예권대, 종 자유민)이 있지 않았을까?
8.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금식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기도다. 에스라는 군대의 호위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9. 우리도 에스라처럼 왕의 도움을 모두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야 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 왕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하다니! 세상은 이런 사람을 '너무 순진하다', '세상 물정도 모른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에스라의 신앙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다. 왕과의 관계, 재물을 다루는 태도, 레위인을 구하는 모습 등등. 그러나 매사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느 2:7-9). 누가 더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에스라의 마음 상태가 그러했다는 얘기다. 교회당에 피뢰침을 꽂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밥을 먹지 않아야 할 때가 있기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먹어야 한다.
10. '제사장의 두목'이 뭐야?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우두머리?  
 어른이 어떨까?
11. 장정만 2,000명이 안 되는 무리가 군사도 없이 그 먼 길을 가야 한다. 이 행렬에 대한 소문 중에 절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면?  
**엄청난 은과 금을 운반한다는 사실:** 길에서 매복하다가 상인들을 습격하는 도적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31).
12. 헌납한 은과 금이 적지 않다. 금이 100 달란트면 3.4톤이고 1,000다릭은 8.4톤이다. 엄청나게 많은 성전기물을 다루는 일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항상 함께 나뉘었다(24, 29-30, 33). (참고로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십인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이다(15-20). 그러니까 24절의 '곧'은 '과'로 고치는 것이 옳다.) 은과 금을 맡겨서 운반하려고 하는 일에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

고 함께 일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을 다루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다. 내부에도, 외부에도 언제든 지 도적이 있을 수 있다. 성전기물 운반은 오늘날 현금수송보다 더 어려운 일 일걸! 담당자 선택 (24), 임무 부여(25, 28-29), 정확한 계수(26-27, 33-34), 즉시 기록(34)함으로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 졌다.

13. 재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에스라가 칭찬을 들을만한 일이 또 있는가?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순간적인 권력은 그럴 수도 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돈에서 나오는 권력이다. 이권 꽤 오래 간다. 돈을 장악해야 실제 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힘을 가져야 자신이 뜻하는 선한 일에도 그만큼 영향력이 클 텐데 에스라는 이런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이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랬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많이 거두었지만 각 교회 대표들이 지참하게 해서(행 20:4) 전달했을 뿐이다. 그래도 바울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소문이 났던 모양이다. 총독이 꺾떡거렸으니 (행 24:25-26)!

14. 에스라 일행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다(7:9). 이것은 바벨론을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서 떠났다는 말이다. 일차 집결지가 아하와 강변이었다. 여기서 재차 출발한 날이 십 이일이었다. 그 동안 뭘 했는가?

**출발 준비와 레위인을 불러모으는 일:** 인원 점검에 사흘이 걸렸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9일에 걸린 셈이다. 물론 그 사이에 음식도 하고 다른 준비도 했겠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고 준비시키는 일이다. 신앙의 회복은 성전제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에스라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사람을 준비하지 않고 제도만 바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5. 엄청난 양의 성전기물을 인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드레못이다. 그러면 엘르아살과 요사밧과 노 아다는 무슨 일을 맡은 걸까(33-34)?

엘르아살은 제사장이니까 입회인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레위인이니까 실무 담당이다. 기록하고 인수해서 보관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오늘날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재정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담당하는 것이 이런 유의 사고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

16. 우리말 욱 중에는 뜻을 풀이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란 게 있다(還鄉). 고향으로 돌아온 게 그렇게 수치스러웠던가? 남자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이중으로 수난을 당한 여자들을 가리 키는 말이 욱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자주 쓰이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란 표현(35)도 이처럼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말이었을까?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니 아마도 자랑스러운 말 아니었을까? 아마 신앙을 회복한 승리자라는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17. 돌아온 자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온 이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속죄제를 드렸을까?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조상들의 죄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신실하지 못했음(=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을 위해서 드렸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한다면 훨씬 더 신앙적이었음에도 말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에 비해서 속죄 제물이 훨씬 적다. 회개보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크다.

## 에스라 9 장

1. 새로운 지도자인 에스라가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의 잘못을 일러바친 방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며(4):**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멋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안타깝워 견딜 수가 없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워하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에스라라는 새 지도자가 왔다. 율법에 정통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지도자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을까?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바른 길을 주시하며 방법을 찾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었다(4).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주셨다.

2.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고 있는가?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명령(신 7:1-4)** 이들과 통혼하는 것이 곧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거듭 거듭 강조했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빠져들까? 하나님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구별된 삶은 어려워진다. 신앙의 열정을 품고 이 땅으로 돌아온지 거의 두 세대가 지났다.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되기도 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울타리를 세워 구별된 민족으로 세우셨지만 실패했다. 엄청난 징계를 겪은 이제는 울타리도 없이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셨지만 또 실패한 셈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3.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에서 특별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

**지도자들이 앞장 선 점:** 방백이나 두목들이 그랬다는 것도 문제지만 율법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마저 그랬으니 희망이 없다. 백성들이 좀 허물어져도 지도자들이 분명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 사회가 그렇게 혼탁해 보여도 튼튼한 이유는 지도 계층은 아주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는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교회의 이런 저런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더구나 다른 교회의 나쁜 소식은?

**자신의 일처럼 마음이 아프면 자신도 한 교회의 지체다:** 자기가 속한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의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폭행 했단다? 유명한 목사가 성추행을 했단다?' 이런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고 답답하면 거룩한 공의회(=하나의 교회)의 한 지체인 증거다.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자신이 지은 것처럼 부끄럽다(6).

5. 에스라가 왜 그렇게 기가 막히는지 설명을 해보자.

수 십 년에 걸친(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의 귀환까지는 거의 130년이다)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가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다. 에스라 자기 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 신실한 지도자에게는 개인의 영욕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망치는 이런 일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 역장이 다 무너지는 셈이다. 자신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매달렸던 모세(출 32:32)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던 에스더(에 4:16)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 개인적으로 보면 바사에서부터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인데 그 꿈이 깨끗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전자에 비하면 작은 아픔이다.

6. 에스라가 이렇게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인가?

**조상들의 잘못(7)과 하나님의 용서(8-9)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10)**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처럼 조상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도 교회사를 알아야 한다. 좋은 예뿐만 아니라 잘못도 알아야 한다. 교회가 얼마나 참혹한 짓을 저질렀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교회를 존속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7. '오늘날 같으니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나라도 잃은 채 포로로 잡혀갔고, 일부는 겨우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사의 변방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선민이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는 것이다. 부끄러운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8. 8절의 '박힌 못'이란 말은 원어상으로 '못'일 수도 있지만 주로 '말뚝'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느 쪽이 좋을지 생각해보자.

'못'이라면 '성전을 튼튼하게 지키는 못'이 되겠고(그러면 '그 거룩한 처소'는 성전이 된다) '말뚝'이라면 가나안 땅에 튼튼한 주거지를 주셨다(그러면 '그 거룩한 처소'는 가나안 땅이 된다)는 뜻이 된다. 문맥상으로는 후자가 적절하다. 8절 후반절에도 일부가 돌아온 것을 언급하고 있고 관주에도 7:28을 보란다.

9.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노예처럼 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니엘, 모르드개, 에스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여호야긴도 풀려나서 왕으로 대접을 받았는데(왕하 25:27-30)?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 많았던 모양인데?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잘 먹고 편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왕을 섬기며 사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이며(8) '노예'이며(9) '복역하는 것'(9)이라는 말이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불쌍한 거지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10.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나 ‘조금 소성’에 하셨다는 것(8)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건가?

**잘하면 크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제대로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양이라는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11. 11-12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신 7:1-3)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후대의 다른 선지자들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 한번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12. 더러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땅은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셨는데(겔 20:6)?

**땅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116):** 가나안인들의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성적 타락으로 더러운 땅으로 여겨진 것이다. 마치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것처럼(레 12:2, 20:21).

13. 에스라가 보기에(13)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죽어 마땅할 자를 용서해주신 셈이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만큼 남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또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더 이상 할 말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다시 징계를 받아 전원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다(14).

14.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해도 당연하다는 뜻:** 의롭다는 것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다. 죽을죄를 지은 죄인에게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자비를 베푼다면 자비로운 재판장은 필자연정 결코 의로운 재판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15.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무엇일까?

**민족의 잘못을 자신이 짊어진 기도(10):** 당대 동족들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마저(13)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애통하는 것이다. 민족의 아픔이나 교회의 어려움을 얼마나 자기의 죄로 여기고 안타까워하는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 혼자 괜찮으면 괜찮은 일인가?

## 에스라 10 장

1. 큰 무리가 에스라에게 모여온 것은 에스라의 어떤 점 때문일까?

**자기 죄가 아닌데도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애통하는 점(9:6-15) 제사장일 뿐 아니라 정치적, 사법적 권한을 지닌 지도자가(7:25-26)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인 점:**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권력을 다 쓰지 않는데서 진정한 존경을 받는다(고전 9:18).

2. 에스라의 통회하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방법을 제시했다(2-3).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지도자가 지녀야 할 교훈을 얻는다면?

**인내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위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므로 이룰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인내를 베푼 셈이 되고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회개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을 지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3. 빛나는 주연배우 곁에 조연배우가 있듯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다. 바울에게는 누가를 위시한 많은 조력자가 있었다. 위대한 에스라에게는 누가 있는가?

스가냐가 있었네(2)!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조력자를 만날 수 있다. 스가냐는 그런 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였다. 권력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는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조력자들을 붙여주셨다. 스가냐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 지도자가 될 능력은 없지만 지도자를 도와서 일이 되게 할 열심은 있다. 존경하고 따를 지도자만 있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조연이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하기도 한다. '빛나는 조연'이다.

4.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다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믿지 않는 이웃, 심지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도 하는(=신앙이 절대적인 명제가 되지 못한) 오늘날의 관점, 특히 인권의 수위가 높아진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한다.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부인이나 아이들이 철저히 개종하는 것은 안 될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 엘리아십(느 3:1)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이란 성전의 양쪽에 있던 방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봉사를 준비하던 공간이다. 그 방에 왜 들어갔지? 거기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임시숙소로 돌아온 셈이다:** 온 백성들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전에서 물러나왔다. 최고 지도자였으니 그 방에 잠시 모셔진 셈이다. 말하자면 '농성을 풀고 일단 임시숙소로 돌아온 셈'인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6.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체의 이름은 가능하면 아름답게 짓는 법이다. 사로잡혔던 자의 회? 무슨 단체 이름이 이럴까?

**우리말의 어감은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명예로운 이름이었다:** '온갖 고난을 각오하고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자부심이 담긴 표현이었기에 에스라서에는 자주 사용되었다(4:1, 6:16,19,20, 8:35, 9:4, 10:6,7,8,16).

7.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일까, 아니면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에스라의 권력(7:26)이 무서웠기 때문일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에스라는 권력자로 백성들 앞에 나선 적이 없다. 먼저 통회하고 자원하는 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백성들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셨다(9). 8절이 악독한 왕의 말처럼 보이지만 원어상으로는 느낌이 좀 다르다. 에스라가 왕으로부터 정치적인 권력을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전한 말은 전부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8절의 '적물(아나쉬 하람)'이나 '쫓아내리라(이바델)'는 말도 종교적인 의미이지 세속권력을 이용한 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왕에게 받은 권력으로는 총독이었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제사장으로만 활동했다(16)는 의미다.

8. 영화나 소설의 슬픈 장면에서는 꼭 비가 내리는데 대부분 작가나 감독의 의도적인 설정이다.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개할 때에 하필이면 큰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문학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건가?

**성경은 문학이 아니다:** 성경도 어떤 점에서는 훌륭한 문학 작품이기는 하나 문학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에 바탕을 둔 기록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9월 20일에 모였는데 태양력으로 하면 12월로 한 겨울이며 동시에 우기다(지중해성 기후). 특별히 비가 많이 온 것을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로 생각했던 모양이다(14).

9. 기한을 달라고 할 것도 없이 개인적으로 내보낼 사람을 다 내어보내 버리면 끝나는 일 아닌가? 개인적인 범죄행위로만 처리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 일에 방백, 장로, 재판장, 제사장은(14)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행정, 사법, 종교적인 절차를 맡은 셈:** 방백은 조사하고 장로는 증인내지 보증, 재판장은 판결, 제사장은 정결예식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은 일이 그렇

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러면 이방인과 결혼했음에도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10. 반대파는 어디에든 있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일까?

에스라의 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시한 방법에 대한 다른 의견이었을 것이다.

11. 족장들이 조사하는 데만 3달이 걸렸다(16-17). 범죄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기에 이만큼 걸렸을까?

**아래에 기록된 숫자는 110명뿐이다:** 무죄로 판결을 받은 자들도 있었을 테니까 조사 대상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지만 여러 족장들이 나누어서 조사한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일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12. 제대로 끝을 못 맺은 것 같은데?

꼭 말을 다 해야 알아들나? 당연한 말은 생략하는 것이 편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13. 자녀까지 낳은 아내를 기어코 돌려보내야만 했을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지만 범죄라는 것을 안 이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회개는 그런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런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혹시 잘못이 있으면 쉬쉬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